

(.8 페이지에 이어)
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살인자'란 말까지 들어야 할 일은 아니다. 노 실장은 리대로라면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막지 못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현 정부의 책임자들이 더 중대한 살인자다.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자고 했을 때 권고를 무시한 것은 정작 청와대 아닌가. 현재 국내 확진자가 2만7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500명에 육박한다. 청와대 논리라면 대체 '살인자'가 몇 명인가.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8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외식을 독려하고 광복절 대체 휴일을 지정한 정부 책임도 크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항의는커녕 '시신을 볼태운 적이 없다'는 북한 주장을 입증해주려고 서해에서 수색 쇼까지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우리 공무원 총살 소각을 '사망'이라고 했다. '살인'이나 '피살'이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살인자'라고 한다.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노 실장이 얘기한 수치는 '8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3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황당한 논리 비약이다.

지금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다에서 떠내려온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기는커녕 총살하고 시신을 볼태운 북한 김정은 정권일 것이다. 북한은 '미안' 한마디 이후에 "총살은 주민 관리를 못한 남측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이다. 그런데도

‘사모펀드, 입시비리’ 징역 7년 구형에 눈물 보인 정경심



벌금 9억원, 추징 1억 6400만원 함께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1만 1657원과 함께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영)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1만 1657원과 함께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표적·기획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후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 제기되고 이에 대한 실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라며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따른 수사가 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세 갈래로 나눠지는 총 15개 범죄사실로 기소가 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가며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로서 우리사회의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락의 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며 "그에 더해 정 문희 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형사

법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 경향이 있다"라며 "이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층,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해책이므로 사용하지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진중권 '뱀비어천가로 조국에 답가' '죄마다 검찰탓이 시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올린 '검(檢)비어천가'를 "죄마다 검찰탓"이라고 개사한 '뱀비어천가로' 되받아쳤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동이뱀이 나라사 죄마다 검찰탓이시니 전현직이 동부하시니"라며 "낮 두꺼운 남자 비난에 아니 뭘째 쪽 팔고 변명하니, 샘이 많은 여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5일 오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투자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있다.

자 사고를 아니 그중세 서울겨져 대권 가나니"라고 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며 올린 글에 맞서 전·현직 법무부장관인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용비어천가 1장의 구절을 개사해 "해동 검룡(檢龍)이 나라사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라고 한 뒤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의 향상적 감시와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향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앙’인가, ‘천재적 제도’인가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진짜' 선거는 12월 14일이다. 일반인 투표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하는 날이다. 선거인단 당선자(elector)들은 그날 출마한 주 수도에 모여 투표하고 결과를 워싱턴DC로 보낸다. 선거인단 중 편마음을 먹고 당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지만 없지 않았다. 대선이 58년 치러지는 동안 165명 나왔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선거인단을 향해 "마음을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만들어졌다. 각 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합의에 이르렀다.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 나름

의 통일된 의사를 대선에 제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각 주에서 단 1표라도 이기면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당시 뒷거래가 횡행하던 의회를 대선에서 배제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 넓은 국토, 열악한 교통과 통신 문제 때문에 전국민 직접선거는 비현실적이기도 했다.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 간 절충의 산물이기도 했다. 북부에 비해 인구가 적었던 남부는 선거인단 제도를 적극 밀었다. 남부는 투표권 없는 흑인 노예 한 명을 5분의 3으로 계산해 선거인단을 텅으로 할당받았다. 지금도 가장 작은 주 주민이 큰 주 주민보다 4배 대표성을 지닌다. 실제 미국 대선은 공화, 민주당 세가 엇비슷한 4~5개 주의 승부로 갈라진다. 선거 운동도 사실상 이 몇 개 주에서만 이

뤄진다. 민심의 대표성을 왜곡하고 복잡하기까지 한 18세기의 산물을 이제는 포기하지는 주장이 적지 않다.

▶전 국민 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한 경우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는데 모두 민주당이 피해자였다. 21세기 들어 민주당은 앨 고어와 힐러리 클린턴으로 두 번이나 당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제도에 대한 전체적 찬반은 팽팽한데 지지 정당별로 갈라지는 이유다. 민주당 지지자 70%는 폐지하자고 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폐지에 반대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선거인단 제도는 민주주의의 재앙"이라고 하다가, 자신이 승리한 2016년엔 "천재적 제도"라고 말을 바꿨다.

▶미국 민주주의의 명예로운 전통은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에 있기보다 질서 있는 권력 이양에 있다. 전투가 끝나면 무기를 버리고 올리브 가지를 들었다. 패자의 감동적 승복 연설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버팀목이다. 그런데 이단아 트럼프 등장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서실장의 치아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투수 김광현은 서른두 살 젊은 나이인데도 수년 전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다. 하도 이를 악물고 던지다 보니, 어금니 손상이 왔다. 악물면 순간적으로 근력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임플란트 넣고 골프 비거리가 늘었다는 어르신이 많다. 하지만 세계 악물면 약 100kg의 하중이 치아에 실려 미세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권투, 럭비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마우스 가드를 낀다.

▶일본에서 늙은 쥐 가운데 어금니 있는 쥐와 없는 쥐로 나누어 미로 찾는 기억력 테스트 실험을 했다. 어금니가 있는 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미로를 찾았다. 반면 어금니 없는 쥐들은 미로 속을

서기만 했다. 이 쥐들을 MRI로 찍어 보니,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 '해마'가 쇠퇴해 있었다. 맞물린 어금니가 없으면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 '씹는 남자'는 한 발로 오래 서있기를 씹지 못하는 남성보다 평균 7초를 더 버틴다는 연구도 있다.

▶미화 1달러 지폐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얼굴이 등장한다. 입을 다문 채 굳건한 의지의 표정이 담겨 있다. 그는 이빨이 썩어서 여러 개 낱린 치아우식증 환자였다. 영국과 전쟁하면서 치통과도 싸워야 했다. 나중에는 치아 몇 개와 의치를 철사로 간신히 붙들어 매고 다녔다. 그걸 유지하려고 안면근육을 긴장시켜 입술을 꼭 다물고 아래턱을 위로 붙였다. 그 상황이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비친 건 아이러

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치아를 여러 개 뺐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등 예전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 징크스가 노 실장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잇몸 혈류량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줄여서 치주염을 일으킨다. 침 분비량도 감소하여 세균 감염 단초가 된다. 이를 방지하면 치아 상실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치과 의사들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을 싫어한다. 실제로 치아가 부실하면 영양 부족으로 노쇠가 일찍 오고, 치매 위험이 커지고, 당뇨병도 악화된다. 이에 구강이 전신 건강 게이트(gate·입구)라고 말한다. 치아는 계속 쓰는 장기이기에 질환 발생 시 초기 치료가 늦으면 바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 의무실에 치과를 운영할 권한다. 노동 강도가 센 직장은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나마 누구나 악물며 살아가는 힘든 시기다. 이 편한 세상은 언제 오나 싶다.